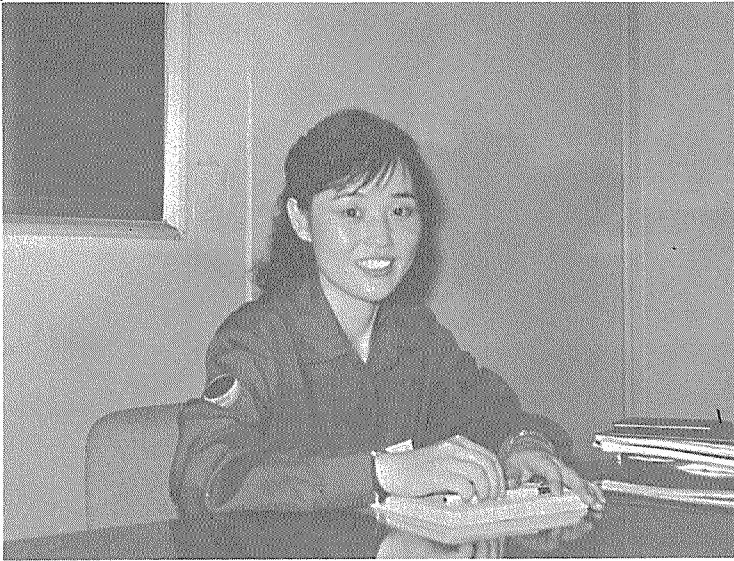


한치의 빈틈도 없는 여자.....

고니정밀(주) 생산2과 명연옥



입사년월일 : '82. 7. 15
 나의살던고향 : 경북 풍기
 가족 : 3남 1녀
 생활신조 : 소신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
 취미 : 테니스, 화초가꾸기
 결혼이란 : 근면하고 성실하며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의 만남.
 동료에게 한마디 :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

산업사회가 급진전 함에 따라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Instructor의 조언은 현장 사원들에게는 많은 힘이 되어 주고 있다. 그래서 고니정밀(주) 생산2과 인스트럭터인 명연옥씨를 찾아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명연옥씨는 미인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경북 풍기에서 태어나 10년 동안 고니정밀과 동거동락을 함께한 사람이다.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단지 이것뿐,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라는 궁금증을 풀어 보기로 했다.

두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나는 표정으로 맞아 주었다.

인스트럭터라는 업무가 낯선 분야이긴 하지만 노사간의 갈등과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명연옥씨는 “우리 생산2과가 80여명의 생산사원이 있는데 생산현장에서 온정과 질서회복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내는 등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그날 사람들의 표정으로부터 애로사항을 파악해내고 상담고충을 해결해 주는 자상한 마음이 요구되는 일이라며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명연옥씨는 생산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원개인과 및 가족상담, 사원행사지원,

노사간이 견해를 위한 제언, 신속한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면서 생산현장을 훈훈하게 꾸며가는 일이 큰 보람이 된다고 그래서 회사를 사원각자가 제2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화한 성품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누구하고도 거리낌 없이 친해 서로서로를 너무도 잘알고 있다고 한다.

고니정밀(주)를 찾았을 때! 이거구나 하는 생각은 사원들이 명랑하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늘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인가 보다. 여기서 명연옥씨는 “회사나 조직생활이 자기자신만이 하는 것이 아니

고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러한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동료들과 숨김없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처음 입사 때보다 근무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주위 후배 사원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즐겁기만하다고 고니정밀(주)의 티죽대감은 말한다.

보통 어둠이 짙게 깔린 10시 교대반들이 들어오면 그동안의 상황설명과 함께 기분들은 괜찮은지 살펴본 후에야 퇴근할 마음이 생긴다고"

첫인상이나 외모에서 보여 주듯이 맡은 업무에서만은 한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다. 또한 인스트럭터라는 일이 인생을 너무 많이 안 기분이 들게 한다고, 함께 자주 이야기를 한다는 후배들도 언니를 보면 포근한 사랑을 느끼면서도 이야기를 통해 하루를 설게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재충전도 시도해 보는 자기만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며 자기관리의 충실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명연옥씨는 정신이 가장 맑은 새벽에 하루를 설게하는 시간을 꼭 가져 본다.

이러한 자아를 가꾸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정신이 흐려져 생활의 리듬을 찾기가 어려워진다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진실된 생활을 배워왔고 앞으로도 진실된 삶

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인생의 자세를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알고보니 호랑이 나이 어언 30년 미혼이란단.

아직 혼자인 이유를 물어 보았다. 홍조면 얼굴로 대답하는 명연옥씨의 이야기가 재미있다. "그동안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저라고 왜 없었겠느냐"며 줄줄이 나오는 사연은 이랬다. 한 남자를 사랑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야기,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아! 이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행운을 잡아 보겠다는 이야기 등등? 사랑에 우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울음도 추억도 아픔까지도 함께할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하루빨리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명연옥씨는 일과 자신의 삶 사이에서 갈등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신을 위안하는 기회로 혼자 여행을 다닌다고 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만나 이야기 하다보면 배우는 것도 많다고, 물론 처음 만난 사람과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는 못하지만 옆자리 남자에게 먼저 말을 전낼 정도로 여유도 있단다. 한번은 부산을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는 남자분이 같이쥬 먹자고 하길래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서 나누어 먹은 적도 있다고, 이러한 인연으로 서로 연

락처를 주고 받고 다음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결말, 왜 먼저 하지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기다리는 여자! 이책을 그 남자가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후로 명연옥씨는 한적한 자연에 젖어 혼자 있을 때에는 그때의 일이 쑥스러워 지기도 한다고, "내가 묻고 싶고 찾고 싶은 내 삶의 시원스런 해답이 있을 것 같은 환상으로 오늘도 마음을 다스려 본다"고, 일만을 고집하는 여자인줄 알았지만 낭만도 간직한 여자임을 알게 됐다. 명연옥씨는 또 한 여자들이 잘어울리는 직종의 산업을 구상중에 있다고 한다.

지금하는 일과 같은 일이지만 산업상담원을 만들어 생산 현장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기왕 발들여 놓은 이상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소망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본다.

명연옥씨를 잠시나마 지켜볼 수 있었던 기회와 그녀가 간직했던 값진 그리움이 있어 웃을 수 있는 즐거움도 가질 수 있어 기자는 흐뭇했다.

화초 가꾸기가 취미이기도 한 그녀가 고니정밀을 더욱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가꾸어갈 것으로 믿는다.